괴테클럽 독서 감상문

작성자	박송희	토론일	2022.07.01
도서명	데미안	저자	헤르만 헤세
별점	4.5/5		
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	선과 악의 구분에 대한 정의가 내용이 전개될수록 달라지고 흐려지는 것이 흥미로웠지만, 마지막에 전쟁에 대해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동떨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.		
한줄평	다양한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선과 악의 정의와 자아를 찾아가는 헤세의 성장 기록		

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

"나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.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. 인위적으로 분리한 절반만 인정할 게 아니라. 우리는 신을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."

"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거야."

"우리는 개인을 너무 좁게 한정해버려. 아주 개별적인 특징이나 보통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만을 개성이라고 생각하지. 하지만 우리를 이루는 것은 다 세계의 성분이야. 우리의 육체가 어류나 훨씬 더 이전이 생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적 계보를 지녔듯, 우리의 영혼도 인류의 영혼 속에 존재했던 온갖 것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."

'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. 알은 세계다.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.'

'이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. 각성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는 단 한 가지,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면에서 견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에 닿아 있건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나가는 일. 그 이외의 다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.'

감상

작품 초반에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'두 세계', 즉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로 구분한다. 그러나 데미안, 피스토리우스, 에바 부인 등 그의 다양한 데미안을 만나면서 점점 그 경계를 허물고, 자아를 찾게 된다. 그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 막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이끌어주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. 싱클레어가 방황하거나, 곤경에 처할

때마다 데미안이 등장하는데, 이러한 점에서 데미안이 실존 인물이 아닌 싱클레어가 방어기제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.

또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존재란 선구자이면서, 친구이고, 또 동시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다. 데미안을 어른같다고 여기던 싱클레어는 중학생이 되어 데미안과 떨어지게 된 후, 그의 생각을 하면서 다른 동급생들에게 자신이 데미안이 된 것 마냥 행동한다. 또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데미안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.

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 대해 그것은 운명이라고 치부하는 장면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 이야기의 흐름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했다. 작품 속에서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며 또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뉘앙스가 등장하는데, 전쟁이 그들이 선택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명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.